

KIA 홈런 3방...최형우 1500타점 신기원

한화 제압...최형우, 4회 결승 투런포 작렬 · KBO리그 최초 1500타점



KIA 타이거즈 최형우가 20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4회초 1사 1루상황에서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쏘아 올리며 통산 1500타점 기록을 달성한 후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간판 타자 최형우가 KBO리그 최초 1500타점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날 KIA 타이거즈도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KIA는 20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펼쳐진 2023 신한은행 쏘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

서 홈런 3방을 몰아친 타선을 앞세워 6-4로 승리했다.

KIA는 28승 1무 31패를 기록해 6위를 유지했다. 3연패의 수렁에 빠진 한화는 23승 4무 37패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베데랑 타자 최형우가 투런포를

작성하면서 KIA의 역전을 이끄는 동시에 대기록을 작성했다.

KIA가 0-1로 뒤진 4회초 1사 1루상황에 타석에 들어선 최형우는 한화 선발 한승주의 조구 작구를 노려쳐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작렬했다.

최형우가 KBO리그 최초로 통산 1500타점 고지를 밟는 순간이었다.

이날 경기 전까지 통산 1498타점으로 이승엽 두산 베어스 감독과 통산 타점 공동 선두를 달리던 최형우는 통산 타점 신기록을 작성했다.

시즌 9호 홈런을 날린 최형우는 시즌 타점 수를 39개로 늘렸다.

KIA가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최형우의 투런포는 결승 투런이 됐다.

KIA는 뒤이어 타석에 들어선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백투백 홈런(시즌 10호)을 쏘아 올려 3-1로 점수차를 벌였다.

선발 손앤더슨의 호투로 2점차 리드를 지킨 KIA는 우천으로 경기가 32분간 중단됐다. 재개된 6회 홈런으로 추가점을 뽑아 6-1로 달아났다.

6회초 최형우, 소크라테스가 연속 볼넷을 골라 1사 2루를 만들었다. 뒤이어 타석에 들어선 변우혁은 상대 구원 정우람의 체인지업을 공략해 좌월 3점포(시즌 6호)를 작렬했다.

한화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선두타자 노시환의 좌중월 솔로 홈런(시즌 12호)으로 1점을 만회한 한화는 이후 김태연, 문현빈의 연속 안타와 이민준의 볼넷으로 일군 2사 만루에서 정은원, 김태연이 연달아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 4-6까지 추격했다.

하지만 김인환이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그대로 KIA에 무릎을 꿇었다.

KIA 선발로 나선 앤더슨은 6이닝 동안 6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4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14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7이닝 2실점하고도 패전의 멍에를 썼던 앤더슨은 아쉬움을 털어내면서 시즌 4승째(6패)를 따냈다.

이번 시즌 첫 선발 등판에 나선 한화의 우완 영건 한승주는 4이닝 동안 홈런 두 방을 포함해 3개의 안타를 맞고 3실점하며 흔들렸다.

한승주는 시즌 2패째(1승)를 떠안았다. /뉴시스



전남드래곤즈, 공격수 레오 미키치 영입 전남드래곤즈는 공격수 레오 미키치(등록명: 미키치)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미키치는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러다. 전남은 미키치 영입을 통해 공격력을 강화하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국적인 미키치는 최근 21~22시즌과 22~23시즌 동안 SV RIED(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56경기 출전 7득점을 기록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신안서 '월드 바둑 챔피언십' 개막

이상훈 9단 등 8개국 레전드 출전...오는 24일까지



신안군은 '제4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지난 20일 선수단 환영식을 시작으로 자은면 '라마다&씨원 리조트'에서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대회는 지난해까지 '1004심 신안 국제시니어 바둑대회'로 열렸으나 올해는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란 대회명으로 새로이 출발했다.

(재)한국기원 주최, 한국기원·신안군바둑협회가 주관하고, 전라남도·신안군이 후원하는 대회는 참가국도 이전 4개국에서 8개국(한국·중국·일본·대만·미국·네덜란드·호주·태국)으로 확대해 명실공히 국제대회로서 위상을 높였다.

또 신안이 낳은 세계적인 바둑 스타 이상훈 9단 등 8개국 레전드 4인방인 조훈현·서봉수·유창혁·이창호를 비롯해 중국의 위번(俞斌)·뤄시허(羅洗河), 일본의 다케미야 마사키(武宮正樹)·요다 노리모토(依田紀基), 대만의 왕리칭(王立誠) 등이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세계 바둑 전설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웅을 겨룬다. 프로기사 이영신, 윤영민의 대국 해설도 함께 진행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한국 바둑 발전을 위해 각종 바둑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방과 후 바둑교실 등을 운영, 바둑 저변 확대와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영암 F1국제자동차경주장서 24~25일 튜닝카 레이싱대회

영암군은 모터스포츠와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24~25일 이틀간 영암F1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2023 영암 튜닝카 레이싱 대회'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4월에 이어 열리는 두 번째 경기로 참가 선수들은 '경기장'이란 뜻을 가진 '짐카나(Gymkhana)' 경기에 나선다.

'짐카나'의 기원은 군인들이 무릎을 꿇고 달래기 위해 드림통을 세워놓고 장애물 경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40m 공간에 놓인 복잡하고 영긴 코스를 돌며 가속, 감속, 코너링 등 운전 솜씨를 겨루는 장애물 경기다. 클래스는 전륜, 후륜, 사륜구동, 경차 등 4개다.

대회 관람은 무료다. 행사장에는 관람객을 즐겁게 할 튜닝카 전시, 체험 주행, 이벤트 주행 등 이벤트도 풍성하다.

황의조의 빛바랜 '부활포'...결정력 부족에 운 클린스만호

교체로 뛴 황의조, 1년 만의 득점포...첫 승 다음 기회로

축구 국가대표팀 골잡이 황의조(서울)가 1년 만에 A매치 득점포를 가동했지만, 클린스만호의 첫 승을 이끌진 못했다.

황의조는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엘살바도르와의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에서 후반 시작과 함께 이재성(마인츠) 대신 그라운드를 밟았다.

조규성(전북)과 함께 투톱으로 나선 황의조는 0-0 상황이면 후반 4분 황희찬(울버햄튼)이 왼쪽 측면에서 찰려준 패스를 받아 오른쪽 터닝슛으로 선제골을 터트렸다.

황의조다운 골이었다. 수비수 2명을 앞에 두고 때린 과감한 슈팅이 상대 골문 구석을 갈랐다.

지난해 6월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 이집트와의 평가전 이후 약 1년 만의 A매치 득점이다.

황의조는 A매치 56경기에서 17골을 넣고 있다.

황의조에겐 2022 카타르월드컵 본선을 포함해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에도 이어진 골 침묵을 깬 득점이자, 공격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한 방이었다.

지난 3월 데뷔 무대에서 2경기 3골을 넣었던 클린스만호는 6월 A매치 첫 경기였던 페루전에서 경기를 주도하고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

오현규(셀틱)와 조규성, 황의조까지 가동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 자원을 모두 썼지만, 스포츠 탈장 수술 후유증으로 벤치를 지킨 손흥민(도르트문)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

엘살바도르전도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었지만, 마무리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후반을 맞이했고 교체로 들어온 황의조가 균형을 짰다.



황의조는 6월 말까지 6개월 단기 임대 형식으로 서울에서 뛰는 중이다. 올 시즌 전반기 서울에서 정규리그 17경기에 출전해 4골 2도움을 기록했다.

기대만큼 많은 골을 넣지 못했지만, 공격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서울이 K리그1 3위를 달리는 데 공헌했다.

광주지역 골프 레슨의 골판

골프 트레이닝 전문점

골프PT & 골프필라테스

제형교정 | 비거리 향상
동작분석 | 운동재활
부상방지 | 재활트레이닝
필드레슨 | 스윙체크 및 기본기

트레이닝 경력 13년
대학교 겸임교수 출강 경력 다수
(운동역학·트레이닝법 등)
KPGA·KLPGA 프로 트레이닝
TPI전문가 김용규 트레이너

#광주 선수트레이닝 #광주트레이닝센터 #선수트레이닝 #골프트레이닝

Ch 광주선수트레이닝센터-골프FIT

010-7773-6661

광주 서구 시청로64 QED골프센터 2층 1호

영업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 AM ~ 21:00 PM
※ 주말은 예약필수

